



## ESG<sup>1)</sup>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sup>2)</sup>



강은영

국가통계연구원 사무관/경제학 박사  
stkey@korea.kr

통계청은 2023년부터 ESG DB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통계연구원에서 최근 2년간 수행된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ESG라는 용어의 시작부터 우리나라에서 ESG가 활성화된 시기, 최근 ESG 공시 관련 움직임과 공시자료를 대상으로 한 통계적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ESG는 기업이 수행의 주체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해 생태계가 구성되었으며 이 중 공시제도와 평가는 통계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의무 공시가 추진됨에 따라 흩어져 있던 공시기준이 일부 통합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일련의 흐름에 맞추어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EU는 공시 내용을 토대로 이미 DB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실행하고 있다. 통계청도 내부적으로 작성된 ESG DB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등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11)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세 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한다.

12) 이 리서치 브리프는 국가통계연구원 연구보고서 「ESG DB 확대 및 활용방안 연구(2025. 4.)」, 「ESG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연구(2024. 4.)」의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 I. ESG의 시작

ESG의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6월에 열린 Global Compact 정상회의에서는 UNEP FI와 UNGC의 보고서가 회의 자료로 제출되었는데 이 자료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UNEP FI는 “주식평가에 대한 사회, 환경, 거버넌스의 중요성(The Materiality of Social, Environmental and Corporate Governance Issues to Equity Pricing)”이라는 제목에서 ESG와 유사한 개념을 명기했고, UNGC는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의 소제목인 ‘재무분석, 자산관리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권고문(Recommendation by the financial industry to better integrat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 analysis, asset management and securities brokerage)’에서 ESG를 내세웠다.

이후 2005년에 UNEP FI가 ESG와 투자 관계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ESG를 투자전략에 내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2006년 4월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블랙록, 빈가드 같은 주요 대형 투자회사들이 UN PRI(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서명하면서 ESG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림 1] ESG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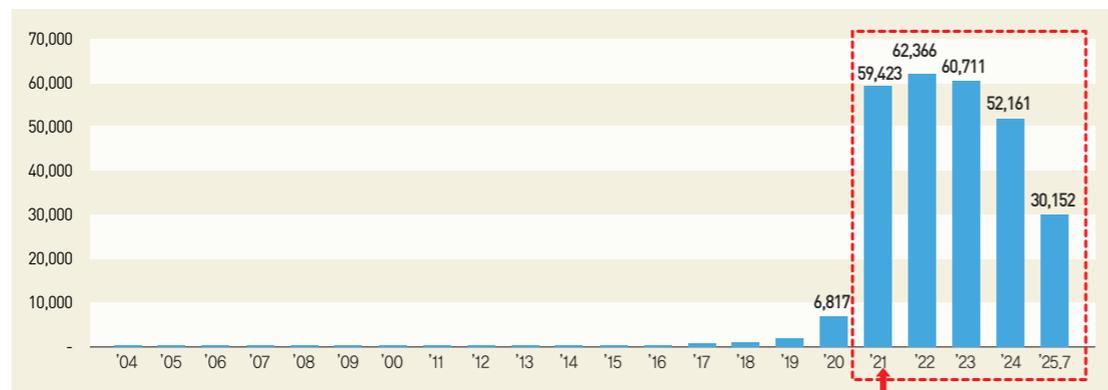
\* UNEP FI(2004), UNGC(2004), UNEP FI(2005) 보고서 표지(좌측부터)

UN PRI는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ESG를 반영하고, ESG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금융산업 전반에 기업의 ESG 활동을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5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가입하여 책임투자 관행을 확산 중이다. 우리나라는 서스틴베스트, 연금관리공단 및 각종 투자회사 등 35개 기업이 UN PRI에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4년 이후 ESG라는 용어가 들어와 사용되었지만 활발하게 사용된 것은 2021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21년에 부처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고, 금융위원회는 'ESG 포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민간연구소로 ESG연구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빅카인즈를 통해 ESG가 사용된 뉴스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4~2010년 간 연간 100건 미만, 2011~2016년 연간 1천 건 미만이던 기사 건수가 2019년 1,600건으로 증가했고, 2020년 약 7천 건, 2021년에는 약 6만 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때 2021년에 ESG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이후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5~6만 건의 기사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ESG 뉴스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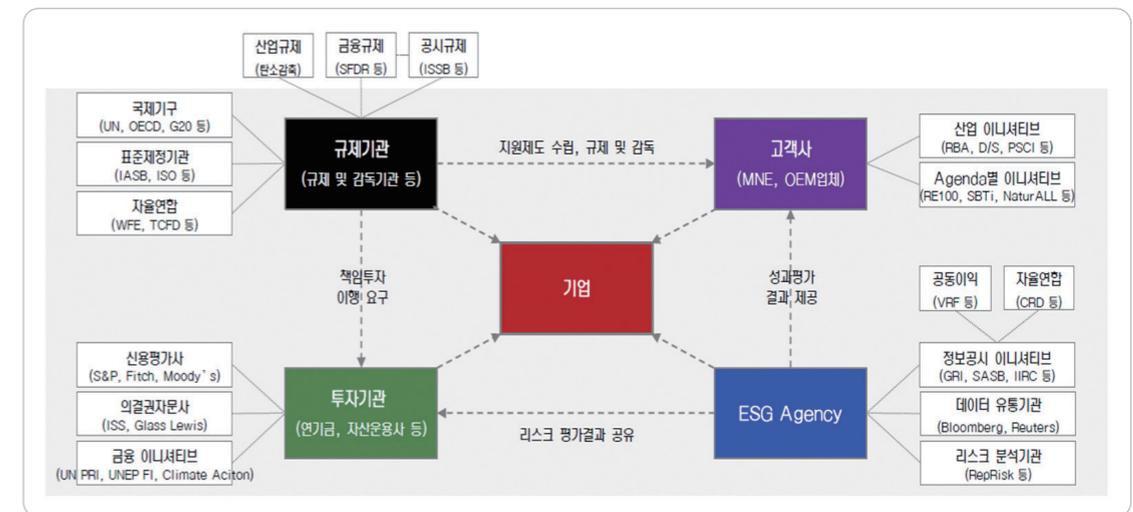
자료: 빅카인즈(2025. 07. 31. 기준 자료), bigkinds.or.kr

## II. ESG 생태계 및 공시기준, 평가

ESG는 기업의 책무이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및 금융기관, 규제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및 규제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하위 그룹들로 생태계가 구성된다. 기업을 중심으로

각 주체가 각종 요구사항과 그 결과를 제공하고 공유하면서 표준의 마련, 자료 거래, 평가, 평가의 반영 등이 이뤄지는 것이다. 자본시장, 공급망, 서비스 분야 등 기업을 둘러싼 핵심 이해관계자는 ESG를 사업 운영의 표준이자 정책으로 활용하며 의사결정 기준의 하나로 반영하고 있다. ESG가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하나의 축으로 작동하며 정량화된 ESG 수준의 확인이 필요해졌고 ESG를 평가하는 시장과 평가를 위해 축적한 데이터의 거래 시장이 생성되었다.

[그림 3] ESG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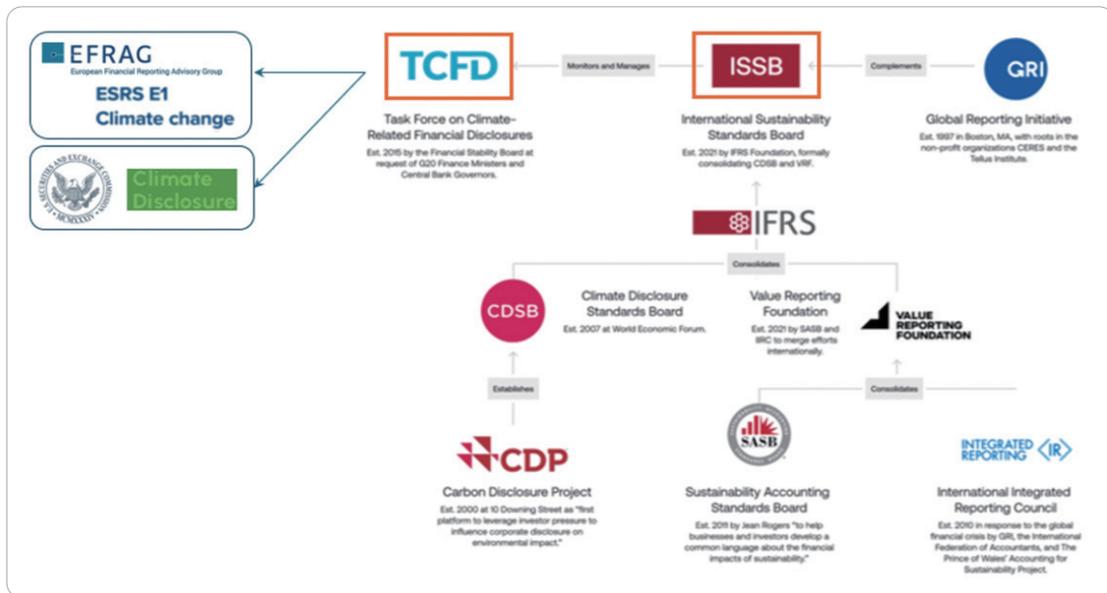
자료: 생산성본부(2023. 7. 7.), "K-ESG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 발표자료

이러한 생태계 중 통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공시기준과 평가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ESG를 둘러싼 환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시기준이라 할 수 있다. 공시기준은 기업이 ESG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근간으로 GRI, TCFD, ESRS, SDG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이제까지는 자율 공시로 기업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각기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작성해 왔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공시 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국제 공시 기준이 마련되어 기존 공시 기준 중 일부가 통합되었으며, 국제 공시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공시기준을 제정해 가고 있다.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국제 재무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IFRS 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를 구성한 뒤 마련하였다. IFRS는 CDP와 SASB를 합병하고, GRI와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TCFD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기존 공시기준의 일부를 통합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림 4] 국제 공시기준 제정 및 공시기준 간 관계



자료: Audit Boar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수정

공시기준은 IFRS S1 일반 요구사항,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며, 향후 S3, S4 등 추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S1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의 범위, 중요성에 대한 기준, 장단기에 걸쳐 보고해야 하는 내용 등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S2는 기후 공시인 만큼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 기준의 원문을 살펴보면 공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지침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커서 기업에서는 작성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하나는 ESG 평가시장이다. 지역 평가사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 600여 개 이상의 평가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현재 3개의 평가사(ESG 기준원,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원 등)가 있다.

평가사마다 평가 기준, 방식, 자료의 차이로 인해 동일 기업에 대해 평가 결과가 상이하여 시장에 혼선을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평가사마다 ESG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생기는

[표 1] 양상별 모델의 종류와 특성

평가명	평가기관	평가대상	평가자료	지표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S&P Global Sustainable 1	글로벌 시총 3,400여 개	기업대상 자체조사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글로벌 상장기업 전체	기업대상 자체조사	275개
MSCI ESG Ratings	 MSCI	글로벌 상장기업 8,500여 개	공시자료 및 설명자료 등	1,000개 (업종별 특화)
ISS Quality Score	 ISS ESG	글로벌 상장기업 5,700여 개	공시자료 및 설명자료 등	
Bloomberg ESG Ratings	 Bloomberg	글로벌 상장기업 11천여 개	기업대상 자체조사	700개
FTSE Russell's ESG Ratings	 FTSE RUSSELL	이머징마켓 상장 4천여 개	공시자료 및 설명자료 등	300개
EcoVadis Supplier Sustainability Ratings	 ecovadis	온라인 평가 신청 기업	공시자료 및 설명자료 등	
Sustainalytics Company Ratings	 MORNINGSTAR SUSTAINALYTICS	글로벌 상장기업 9천여 개	공시자료 및 설명자료 등	
ESG 기준원	 KCGS	상장법인, 코스닥 100	공시자료 및 설명자료 등	기본 323개 심화 57개
서스틴베스트	 SUSTINVEST	온라인 평가 신청기업	공시자료 및 설명자료 등	215개

자료: 생산성본부(2023. 7. 7.), "K-ESG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 발표자료에서 저자 일부 수정

문제로 시장에서 ESG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회사들은 다양한 평가사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ESG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가사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배구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 외에 설명자료, 기사와 같은 비정형 자료에 대한 자체적인 자료 수집 또는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DJSI는 기업의 ESG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며 산업별로 최고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MSCI는 외부에 공시된 ESG 자료를 활용하여 내부의 업종별 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국내 'ESG포털'에서 국외 평가사로는 무디스, MSCI, S&P, 국내 평가사로는 KCGS,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동일 기업에 대해 상이한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기관별 차이는 평가 요소(ESG 각 영역에 대한 가중치 및 지표의 차이), 평가 자료, 종합지수 작성 방법 등에 의한 것이거나 평가기관의 결과 간에 상관성이 낮아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Dimson 외(2020)는 미국 평가기관(MSCI-Sustainalytics-FTSE Russell) 간 상관계수가 0.45로 낮다고 분석하였으며, Berg 외(2022)도 글로벌 6대 평가기관(KLD-Sustainalytics-Moody's-S&P-Refinitive-MSCI) 간 상관계수가 평균 0.54로 낮으며 특히 지배구조 부문은 0.30으로 평가기관 간 차이가 크다고 지적

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인형(2021)이 국내 평가기관인 KCGS와 서스틴베스트 간 상관계수가 0.61이라고 분석하였고, 이승준 외(2022)는 국내와 국외 평가기관(MSCI-KCGS-서스틴베스트) 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별로 평균 2.2단계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 II. K-ESG 가이드라인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의 적용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기업의 ESG 경영 추진 및 평가 대응 방향 제시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실정에 따른 K-ESG에 대한 범용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또한 다양한 ESG 평가지표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부처 및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지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원활한 대응 및 적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진단 항목을 도출하였다. 공시기준은 공시의 범위와 대상, 항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나 산식을 제공하지는 않아 기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반영하여, K-ESG 가이드라인은 영역, 범주,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산식, 데이터 원천, 자료 적용 기간, 범위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적용 편의를 도모한

[그림 5] 평가기관 간 결과의 차이

회사명	KCGS				한국ESG 연구소	서스틴베스트	Moody's	MSCI	S&P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공시여부
	종합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	A	A	A+	B+	B+	BB	32	-	44	NO
○○○○○○	B+	B+	A	B+	-	-	-	-	24	NO
○○○○○○	A+	A+	A+	A	A+	AA	10	-	38	YES
○○○○○○	C	A	A+	D	-	-	-	-	9	NO
○○○○○○	B	C	A	B	-	-	-	-	-	NO
○○○○○○	B+	B+	A	B+	-	-	-	-	25	NO
○○○○○○	A	A	A+	A	-	-	19	-	42	YES
○○○○○○	A	A	A+	A	A	B	30	BB	67	YES
○○○○○○	A	B+	A+	A	B+	B	17	BBB	38	NO
○○○○○○	A	A	A+	A	-	-	35	-	59	YES

자료: 'ESG 포털' 검색 화면

[그림 6] K-ESG 가이드라인 발간 현황



자료: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k-esg.org)

것이 특징이다. 2022년에 공통 가이드라인 v1.0을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공급망,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간해 왔으며, 2024년 12월에는 K-ESG 가이드라인 v1.0 개발 시 참고했던 국내외 ESG 규범의 변화 및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K-ESG 가이드라인 활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된 v2.0을 발간하였다.

### III. ESG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ESG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이끌어 줄 통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작성 기관으로서 ESG 관련 통계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기업과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SG와 관련하여 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기업이 공시하고 있는 자료(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배구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이고, 둘째는 평가기관이 소유한 자료이다. 이 중 평가기관의 자료는 평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사와 공시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평가기관은 이 자료를 무상으로 공개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국외의 굵직한 평가회사들은 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자료를 판매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평가사 중 ESG 기준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DB’라는 명칭으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수집 내용에 대해 연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상으로 판매하는 자료는 비싼 가격에 비해 자료 수집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며, 회사가 특정되도록 사용할 수 없다는 비밀유지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의 활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의 공개자료 또한 엑셀이나 데이터 파일이 아니라 PDF의 보고서 형태로 줄글 및 표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공시자료는 각종 평가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의무 공시에 따라 앞으로 동일한 포맷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기업마다 공시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데이터 형태가 아닌 PDF 자료인 점, 공시된 자료에 대한 낮은 신뢰성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나, 공시 의무화에 따라 공시되는 자료의 형식은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2023년부터 기업이 공시한 자료 및 통계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K-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별 ESG DB를 개발 중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시장에 공개되어 있거나 이미 입수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장 기업 중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의 비율이 50%를 밑돌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아직은 기업의 ESG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 자료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통계청은 작성된 DB를 공개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SRI 통계플러스에 기고(윤행근 외, 2025)하는 방식으로 ESG에 대한 통계적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의무 공시 추진 및 국내 공시기준(KSSB) 확립 등 ESG 통계생산 환경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미 흘러져 있는 재무 및 ESG 공시에 대한 정보 플랫폼(유럽단일접속지점,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실행 계획으로 공시된 자료를 모아 데이터 형태(csv, excel 등)로 대중 모두에게, 자유롭게, 무료로 제공할 것을 계획 중이다.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공시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통계청의 접근방식과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EU는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의 자료 공시부터 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까지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한 반면, 통계청은 노동집약적 방식으로 담당자의 개인 PC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ESAP을 통해 EU 회원국의 ESG 활동이 DB화될 때, 우리나라의 ESG 공시자료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 시장의 수요와 정부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강은영, 김진옥, 2024, "ESG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통계연구원.  
 강은영, 정준희, 조은숙, 김유미, 2025, "ESG DB 확대 및 활용방안 연구", 국가통계연구원.  
 윤행근, 이지민, 2025,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어디까지 왔나?", 통계플러스 2025년 여름호 vol. 29, 국가통계연구원.  
 이승준, 이연지, 2022, "보험회사 ESG 평가의 현황과 과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슈보고서 2022-04, 보험연구원.  
 이인형, 2021,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이슈보고서 2021-09, 자본시장연구원.  
 Berg, F., Köelbel, J., and Rigobon, R., 2022,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 *Review of Finance*, 26(6), 1315-1344.  
 Dimson, E., Marsh P., and Staunton, M., 2020, "Divergent ESG Ratings", *The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 47(1), 75-87.